

서용선의 도시그리기: 유토피즘과 그 현실 사이 Utopia's Delay: the Painter and the Metropolis



전시명 : 서용선의 도시 그리기: 유토피즘과 그 현실 사이
Utopia's Delay: the Painter and the Metropolis

일 시 : 2015. 4. 17 (금) - 6. 21 (일)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금호미술관 전관

출품작 : 총 18 여 점 (평면 16 점, 드로잉 2 점)

문의: info@hakgojae.com
02-720-1524~6

프로그램 : <작가와의 대화>

2015. 5. 9 (토), 오후 3시~4시, 금호미술관 3층 세미나실

서용선 (초대 작가), 박윤석 (작가, 저널리스트)

1. 전시개요

학교재갤러리는 5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회화와 조각 작품들에 담아온 작가 서용선의 초대전을 금호미술관(4월 17일~5월 17일)과 공동 개최한다.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및 2014년 제 26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회화작가로서 자리매김한 그는 2008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치밀하게 짜인 화면 구조와 거친 붓 터치, 강렬한 원색, 그리고 붉은색의 인물들로 대변되는 그의 작업은 한국의 표현주의라고 일컬어지며, 한국 화단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번 전시는 그가 1980년대 중반부터 작업해온 소재인 도시를 주제로 뉴욕, 베를린, 멜버른, 북경, 서울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그의 도시 풍경은 비단 도시의 외관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규율, 그리고 도시와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종합적 성찰의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는 대형회화와 소품 등으로 구성되며, 도록에 실린 작가의 작업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전시 구성

학고재갤러리는 베를린의 알렉산더플라츠 광장과 메르키시 운하를 지나 뉴욕과 시드니의 전철 안을 거쳐 한국의 인천공항까지 다섯 도시의 모습과 도시 속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서용선의 회화 16 점과 드로잉 2 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고재갤러리에서 선보이는 그림들은 도시풍경을 확대하여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에 집중한다. 그들 하나하나가 거시적으로는 도시를 구성하며 도시 풍경의 일부를 이룬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도시의 시대적 징후를 참고하되, 그 속에서 살아가며 취하는 모든 행태에 집중해야 한다. 도시적 환경이나 시대적 징후를 보여주는 배경이 비교적 제거된 자화상이나 초상의 경우에도 그들의 몸짓과 인간을 바라보는 나의 관심이 응축된 것이다.”

(2012.6.18-20 일기)



좌) 미테 다리 가수 Schlossbrücke Busker, Mitte, 2015, Acrylic on canvas, 253x169.5cm

우) 모마 큐레이터 MoMA Curator, 2013-2015, Acrylic on canvas, 53x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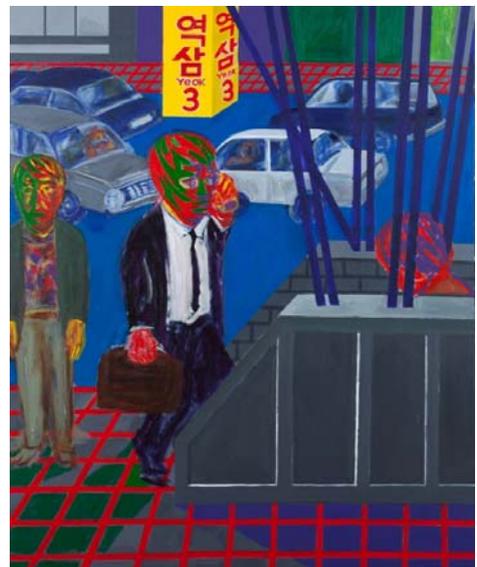
2층에서는 한국 서울의 변화가인 역삼역을 그린 회화 4점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서울 풍경에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출퇴근 복장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인물들은 바빠 돌아가는 일상에 짓눌린 현대인의 모습이다. 또한 출구 표시, 버스 표지판, 길거리 간판 등 도시의 복잡한 사인체계가 넘실대는 거리 풍경은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서울의 현실을 조명한다. 이와 함께 전시장 바닥에 설치된 목조 두상들은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인 도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더불어 작가의 작업 여정과 도시의 근대화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도록,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 등으로 구성된 아카이브가 함께 전시되어 작업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0년대 내가 자란 서울의 변두리 골목에서는 남자들이 흔히 이와 같은 (런닝셔츠 차림의) 모습으로 길거리에 앉아 있곤 하였다 [...] 이제 서울의 대다수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저 아파트 거실에서나 흰 런닝셔츠를 입고 서성거린다. 80년대 아니 70년대 후반 미술대학초년시기에도 나는 도시의 모습에, 정확하게는 도시의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그 모습들이 70년대 내가 살던 서울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넥타이를 조여 맨 양복 입은 남자들의 행진은 도시의 전형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2012. 6.18-20 일기)



좌) 역삼역 4 (Yeoksam Station 4), Acrylic on canvas, 161.5x130cm, 2015

우) 머리들 (Heads), Dimension variable, Wood, 2015

3. 작가 노트

하나의 그림은 자신의 평소의 관심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과의 교차 속에서 생겨난다.

일상의 도시를 주의 깊게 보고있을 때, 그곳에서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나고 그림의 소재가 잡히곤 한다.

그림의 내용은 또한 자신의 연습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선택된다.

이 연습은 일상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세계에 대한 각자 개인의 감각적 가늠이라고 생각된다.

누구에게나 이미 자신의 관심영역에 대한 표현이 축적되어 있는 셈이다.

관심영역은 무엇을 표현해야겠다는 자의식의 확립과 반복된 실험, 그리고 표현의 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

배경의 모습은 도시사람들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의 도시민의 표정과 몸짓 속에서 인간 본성의 일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적응능력의 동물적 유전성을 드러낸 것이다.

사회적 생태체로서 인간의 모습은 사회적 환경과 함께하고, 도시는 인간과 함께하는 공간의 역사를 언제나 포함하고 있다.

도시는 독특한 자신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도시의 시대적 징후를 참고하되, 그 속에서 살아가며 취하는 모든 행태에 집중해야 한다.

도시적 환경이나 시대적 징후를 보여주는 배경이 비교적 제거된 자화상이나 초상의 경우에도 그들의 몸짓과 인간을 바라보는 나의 관심이 응축된 것이다.

-2012.6.18-20 작가노트

4. 작가 약력

서용선 (1951~)

- 1979 B.F.A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2 M.F.A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4 <서용선의 신화_또 하나의 장소> 이종섭미술상 수상기념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체화된 것들-자화상과 풍경들> 후쿠즈미 갤러리. 오사카
<서용선> 독일학술교류처(DAAD). 본
- 2013 <서용선> 킵스갤러리, 뉴욕
<서용선> 베를린 주독한국문화원. 베를린
<기억 재현 서용선과 6.25>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 2012 <Territory> 킵스갤러리, 뉴욕
- 2011 <시선의 정치> 학교재갤러리. 서울
<서용선> RMIT School of Art Gallery. 멜버른
<서용선> son galerie. 베를린
<The man who paints> Shinwha Gallery. 홍콩
<Touch> Fukuzumi gallery. 오사카
- 2010 <Men in the History> 604J/604H 갤러리. 부산 과 스페이스 홍지. 서울
<6 DownTown> Kips Gallery. 뉴욕
- 2009 <올해의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미래의 기억> 박수근미술관. 양구
<Face> Fukuzumi gallery. 오사카
- 2007 <노산군일지> Fukuzumi gallery. 오사카
- 2006 <Yongsun Suh New Work> Crecloo Art gallery. 뉴욕
- 2004 <미래의 기억> 일민미술관. 서울
- 1995 <자화상 드로잉> 스완갤러리. 뉴욕

기획전·단체전

- 2014 <얼굴> 소밥갤러리. 양평
<최치원 풍류탄생> 예술의 전당. 서울
<바람을 흔들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최치원 풍류탄생> 예술의전당. 서울
- 2013 <인물로 시대를 읽다>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 2012 <Through Your Eyes> 시드니한국문화원. 호주
<민성>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삼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Korean Painting Now> 국립타이완미술관. 타이중
- 2011 <올해의 작가 23인의 이야기: 1995-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미지 수사학>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서울, 도시 탐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코리안 랩소디>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 2010 <눈꽃 위에 피는 꽃 분단미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Korean Art Festival : In and With :Contemporary Korean Art> Cantor Fitzgerald Gallery.
Harverford College. 필라델피아
<이와미 국제 미술전-돗토리현의 사람과 자연> 돗토리
<한국현대미술의 역사의식 : 영원한 압박임> 하와이대학미술관. 마노아
- 2009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예정지. 서울
<7080 청춘예찬-한국현대미술 추억사>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갤러리 소밥 개관> 양평
- 2008 <그림 문학을 그리다> 국립청주박물관 외. 청주
<1970년대 한국미술_국전과 민전>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6 <독섬, 독도>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2005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미술 100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평화를 향한 전 세계 미술가들의 외침_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3 <역사와 의식, 독도진경 판화>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빛과 색채의 탐험> 예술의전당. 서울
- 2002 <역사와 의식 독도진경> 서울대학교박물관/독립기념관. 서울. 천안
- 2001 <한국미술2001;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미술대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0 <한국 현대미술> 레바논 베이루트유네스코 펠리스 외. 베이루트
<시대의 표현-눈과 손> 예술의전당. 서울
- 1999 <한국현대미술 자연의 소리> 캐나다 순회전
<'99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8 <드로잉 횡단> 금호미술관. 서울
<새로운 천년 앞에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1997 <한국미술'9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6 <도시와 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5 <세계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4 <서울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2 <'92 한국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 1991 <한국현대미술전> 바사렐리미술관/미건갤러리. 프랑스/서울

-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전> 예술의전당. 서울
<사람들- 이 땅(土)에서> 금호미술관. 서울
1987 <19회 까뉴 국제 회화제> 프랑스 까뉴
1986 <Seoul in Seoul> 오사카부립미술관. 오사카
1985 <85청년작가> 국립현대미술관.
1984 <제6회중앙미술대상> 국립현대미술관.
1983 <평론가 12인 위촉선정 '82문제작가 작품> 서울미술관. 서울
<오늘의 작가전 Drawing'83 SEOUL> Scope gallery. L.A
1982 <동아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1978 <중앙일보사 제1회 중앙미술대상전>(특선)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일보사 한국미술대상>전. 국립현대미술관.